
		<h1>보도참고자료</h1> <p>2021. 8. 25.(수) 배포</p>			
보도일	<p><b>2021. 8. 26.(목) 회의종료 시(16: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  <b>인터넷·방송·통신 8. 26.(목) 회의종료 시(16:00)부터 보도 가능</b></p>				
담당과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담당자	과장 사무관	장미란 김홍오	(☎ 044-203-6883) (☎ 044-203-6764)

## 「청년특별대책」 교육부 소관 과제

※ 8.26.(목) 국무총리 주재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세대 내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청년특별대책 심의·의결

-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8월 26일(목)에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청년특별대책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청년특별대책의 교육부 소관 과제에는 서민·중산층 가구까지 고등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지원방안이 포함되었다.

### < 서민·중산층 가구까지 고등교육비 부담 완화 >

- ① 서민·중산층 가구까지 반값등록금 수준의 국가장학금 지원
  - ‘대학 등록금’은 대학 진학률이 70%인 현실에서 청년과 부모 세대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며,
    -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학생 가구의 등록금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 ※ 그간 정부의 등록금 부담완화 노력에도 등록금 절반이상 지원학생은 전체 대학생의 32.1%(215.3만 명 중 69.2만 명) 수준으로 정책 체감도는 낮은 상황
  - 이에 정부는 체감 가능한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2년부터,
    - ①학자금 지원 5, 6구간은 390만 원(연간 24.7만 명), 7, 8구간은 350만 원(연간 31.5만 명)까지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대폭 인상하여 서민·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 학자금 지원 8구간은 전체 대학생의 소득 하위 50%수준으로, 8구간 가구의 월 평균소득(2020년 1학기 507만원)은 통계청 소득 10분위 중 6분위에 해당

- 또한, ②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는 연간 700만 원(연간 11.3만 명), 둘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 전액(연간 6.2만 명)을 지원하고,
- ③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도 등록금 전액(연간 14.0만 명)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배려대상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 국가장학금 총 규모(조원) : ('21) 4.0 → ('22) 4.7(+0.7)

## ②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대상 확대 및 상환부담 경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지원 대상을 ①학부생에 비해 등록금 부담이 큰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②성적요건(직전학기 70/100점(C학점) 이상)\*\*을 폐지하여 학자금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2022년에는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생 등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확대 예정

\*\* 학자금 대출 거절자 중 성적·이수학점 미달자(비율) :  
(2018년) 22,284명(68%) → (2019년) 12,850명(55%) → (2020년) 13,877명(56%)

- 또한, ③저소득층\*·다자녀 가구 학생의 경우 재학 중 발생한 이자를 전부 면제(등록금 대출 포함)하여 실질적인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④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도 면책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딛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기존 생활비 대출의 경우,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 대상으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지원

## < 코로나 졸업반 비진학 청년 역량개발 지원 및 취업지원 강화 >

### ③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신설 및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강화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 증가와 취업준비 기회 부족으로 직업계고 학생들이 취업역량 저하, 사회 진출 준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 직업계고 기능사 자격시험 합격률 : (2019년) 65.14% → (2020년) 60.46%

- 이에 2022년에는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및 훈련과정을 신설하여 직업계고 취업 희망자의 직무역량 향상 및 사회진출을 지원한다.
  - 직업계고 학생의 현장실습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수준을 1인당 4백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지원 규모: (2021년) 3.1만 명 → (2022년) 2.94만 명

#### ④ 고졸 재직자 후학습 장학금 확대

- 고졸 청년이 취업 이후에도 경제적 부담 없이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후학습 장학금 지원인원을 확대(2021년, 11,800명 → 2022년, 15,000명)할 계획이다.

□ 교육부는 이번 청년특별대책 이행을 위한 관련 예산을 2022년 예산안에 반영하고, 2021년 시행계획에 따른 청년정책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청년의 삶이 변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붙임】 청년특별대책 중 교육부 소관 과제



**1. 서민·중산층 가구까지 고등교육비 부담 완화**

**① 서민·중산층 가구까지 반값등록금 수준의 국가장학금 지원<sup>교육부</sup>**

- (현황) 국가장학금을 차등 지원(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중으로 예산 총액 수준에선 반값등록금 실현했으나 개인수준에선 지원구간별로 지원액 차이가 커 서민·중산층의 체감도 부족

\*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 (확대) 5~8구간 국가장학금 지원단가를 반값 등록금 수준으로 인상해 개인수준에서도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달성(연간 56.2만명)

\* 5, 6구간 368만원 → '390만원' / 7구간 120만원, 8구간 67.5만원 → '350만원'

\*\* 국가장학금 규모(조원) : ('21) 4.0 →('22) 4.7(+0.7)

- 특히 기초·차상위 가구에 대한 지원은 대폭 강화\*(연간 17.5만명)하고, 대학생 자녀가 많아 부담이 큰 가구의 등록금 부담 제로화 추진(기초·차상위 둘째, 8구간 이하 다자녀 둘째·셋째 전액 지원, 연간 14.0만명)

\* 520만원 → 첫째 자녀 '700만원' / 둘째이상 자녀 '등록금 전액'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단가(만원)

구분		기초·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대비		-	~30%	~50%	~70%	~90%	~100%	~130%	~150%	~200%	
'21년	I 유형	520	520	520	520	390	368	368	120	67.5	
	다자녀	520	520	520	520	450	450	450	450	450	
↓											
'22년	I 유형	<b>700</b> (둘째 전액)	520	520	520	390	<b>390</b>	<b>390</b>	<b>350</b>	<b>350</b>	
	다자녀	첫째,둘째	<b>700</b> (둘째 전액)	520	520	520	450	450	450	450	450
		셋째이상	<b>전액</b>	<b>전액</b>	<b>전액</b>	<b>전액</b>	<b>전액</b>	<b>전액</b>	<b>전액</b>	<b>전액</b>	<b>전액</b>

**②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대상확대(+2.9만 명) 및 상환부담 완화(5.9만 명)<sup>교육부</sup>**

- (현황) 지원대상이 제한적(학부생, 성적요건\*)이고, 제한적 이자지원, 파산시 비면책 등으로 대출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

\* '20년 학자금대출 거절자 중 성적·이수학점 미달자는 13,877명으로 전체의 56%에 달함

\*\* 저소득 청년의 등록금 대출 이자지원은 無, 개인파산 시 ICL 대출금 상환책임은 非면책

- (확대) ICL 지원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일반대학원생 등 약 7천명)하고, 대출의 자격 요건 중 성적요건(C학점) 폐지(2.2만 명 대상)

- 취약계층 대상(5.7만 명) 재학 중 ICL 대출금에 대한 이자면제를 확대하고,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청년은 ICL 원리금도 면책(2천명)

	현재	확대
기초.차상위	생활비 대출(年300만 원) 무이자	재학중 등록금 대출도 이자 면제
다자녀	4구간까지 생활비 대출(年300만 원) 무이자	재학중 등록금 대출도 이자 면제(확대) 5~10구간 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신규)
저소득다자녀 대학원생		재학중 생활비·등록금 대출 무이자(신규)

## 2. 코로나 졸업반 비진학 청년 역량개발 지원 및 취업지원 강화

### 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신설<sup>교육부</sup>

- (현황) 직업계고 학생 등 취업준비 기회 부족 및 취업역량 저하로 사회진출 어려움 가중
  - \* 직업계고 기능사 자격시험 합격률: (2019) 65.14% → (2020) 60.46%
- (신규) 맞춤형 직무교육 및 훈련을 지원하여 직업계고 학생 등 직무역량 향상 및 사회진출 지원
  - \* 지원규모: (2021년) 無 → (2022년) 1,050명

### ②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강화(1인당 400→500만 원)<sup>교육부</sup>

- (현황)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로 기업의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취업 어려움 증가
  - \* 취업전환율(%): (2019) 67.5 → (2020) 64.9
- (확대) 현장실습생의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해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수준을 1인당 500만 원\*(19년 400만 원)으로 확대
  - \* 지원규모 : (2021년) 3.1만 명 → (2022년) 2.94만 명

### ③ 고졸 재직자 후학습 장학금 확대(1.2→1.5만 명)<sup>교육부</sup>

- (현황) 고졸 청년이 취업 후 역량을 지속 개발할 수 있도록 후학습 장학금을 지원 중이나 현장수요 대비 지원규모 작음
- (확대) 고졸 청년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지원규모 확대
  - \* 지원규모 : (2021년) 11,800명 → (2022년) 15,000명